

수영장·선수촌 60%대 공정률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 한창

이젠 광주U대회다

<중> 광주시 준비 어디까지 왔나

지난 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6 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이제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광주 U대회)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U대회는 전 세계 170여개국 선수단과 임원진 2만여명이 참가해 12일 동안(2015년 7월3일~14일) 21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지구촌 최대의 대학스포츠 축제로 열리게 된다. 대회준비 상황을 들여다 봤다.

◇신설경기장은 단 4곳, 흑자대회 인프라 구축=U조직위에 따르면 광주 U대회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과 훈련장 등 경기시설은 총 70개소로,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최소규격에 맞춰 야구장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양궁장 등 4개소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에 사용한다. 광주에는 없거나 부족한 경기장 또는 훈련장은 인근 전남(21개소)과 전북(4개소) 내 시설을 활용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

지난해 착공한 남부대학교 내 수영장은 현재 공정률 60%로 지붕 철골을 조립중이며,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여자대학교 내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3층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개보수 대상 시설은 현재 기본설계 또는 지난 9월 이후 착공에 들어갔으며, 모든 시설물은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국제 대회 중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중인 선수촌도 총 35개동(3726세대·지상 15~33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서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광주 U대회는 이미 정부가 승인해 준 사업비보다 1200여억원을 절감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재정절감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민폐대회'가 되지 않도록 신축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운영비 등을 줄이는 데 주력해 흑자대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실천처럼 준비하라=U대회 조직위는 최근 대회준비 마지막 단

경기장 70곳 중 4곳 신설... 모든 시설 내년 3월 완공

5개 종목 1700명 선수단 모의대회 '실전경험'도

자원봉사자 확보 주력... 개·폐회식 아이디어 공모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요

올림픽에 버금가는 종합스포츠대회로서 전세계 대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축제이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스포츠를 통해 대학생 선수들이 서로 교감하는 교육·문화의 장이다.

- 기간 : 2015년 7월3일 ~ 14일(12일간)
- 장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및 광주, 전남, 북 일원 경기장
- 종목 : 21개(정식13, 선택8)

- 정식종목: 기계체조/농구/다이빙/리듬체조/배구/수구/수영/유도/육상/축구/탁구/테니스/펜싱
- 선택종목: 골프/배드민턴/사격/야구/양궁/조정/태권도/핸드볼

- 주제: 스포츠를 통한 대학 교육 및 문화의 발전
- 참가자격: FISU 회원국가 170여개국의 만 17세 ~ 28세의 아마추어 선수
- 주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계로 70개 경기장과 비경기 시설 등에서 현장운영 시나리오와 행동 지침을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등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5개 종목 1700여 선수단을 대상으로 모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도 준비과정부터 폐막식 이후까지 U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37명이 참여하는 등 메가스포츠대회의 실전 경험을 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는 이를 통해 경기연맹과의 협력체계, 경기운영 시설물의 관리운영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성공 개최의 답은 자원봉사자=조직위는 선수단, 심판진, 미디어 등 참가자들의 손과 발이 될 자원봉사자의 활약 여부가 성공 개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2010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중이다. 특히 170여 개국에서 찾아올 방문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일어 등 유니버시아드 외국어 스킴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위는 또 대회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10개 분야 3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인력을 포함한 6만명의 자원봉사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자는 5만7000여명이며, 이 중 3만3000여명은 직무교육을, 2000여명은 심화교육을 마쳤다.

◇시·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내년 7월 3일과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각각 열리는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는 광주의 문화예술과 정신을 담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내용으로 치러지는 계획이다.

개회식의 총감독은 뮤지컬 제작 감독으로 명성을 얻은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 감독이 맡고 있다. 전 국민 대상 공모전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한다. 전국 곳곳에 성화 봉송 구간을 설정해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범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외 성화 봉송은 별도로 진행해 국내 성화와 합화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6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5일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과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왼쪽부터)가 3개 시·도의 공동합의문을 손에 들고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서해안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등 12가지 합의

호남권 정책협 순항할까

전북 배려 전제 3개 지자체

'전략적 상생 방안' 마련 필요

호남권 3개 시도지사가 6년만에 머리를 맞댄 것은 쇠락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전북이 공동 운명체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었다.

5일 오후 5시 제6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오후 4시10분부터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도로 상생 협력에 열성적이었다.

송 지사는 이날 "이 지사와 동갑이고, 윤 시장의 외가도 전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데 노력했다. 상당기간 '대화' 없이 상실된 정서적 일체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 시장과 이 지사도 이날 "자주 만나고 결실을 내놓으면서 호남은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호남권 수장들이 말하는 공동의 이익과 권익을 찾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친환경(청탄) 부품소재,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부품소재, 바이오·생물산업,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 광주R&D특구 지정,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전북국가산업단지, 빛가람도시 등 산업이나 정책들이 상당수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이어져온 갈등의 골도 아직 존재한다. 2011년 광주·전남은 전북의 군산공항 국제공항화를 반대하고 나섰고,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 향방에 군산항과 목포신항이 경쟁해 군산항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호남권 내 소통 및 조율

이라는 채널을 제가동함에 있어서 3개 시·도간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각각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며, 경쟁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규모를 키우는 등의 '전략적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 지사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전북 배려'도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호남권 수장은 1년에 상·하반기 정기개회(일정 조정 가능), 공동의제 적극 발굴 및 대정부 공동활동, 520만 시·도민의 안전·경제·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제7회 호남권 정책협의회회의의 장소는 광주로 정해졌다.

노경수 광주대교수는 "일단 가장 발전이 더딘 호남권이 단결된 이미지를 알렸는데 의의가 크다"며 "선풍기 어려운 안건을 다루기보다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윤현석기자 chadol@

이서적벽 가보나-1면에서 계속

보트에서 내려 입도를 따라 망향정(望鄉亭)으로 향한다. 수물 당시 이곳에는 3개면 15개 마을 56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물속에 잠긴 고향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실랑이들의 설움을 달래주던 정자가 앉아 물 건너 적벽을 바라본다. 열은 구름 사이로 연신 시련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리고 비탈에 서 저 나무의 직립! 나무는 물과 하늘의 경계를 지우며 아슬아슬한 자유를 누린다.

방랑시인 김삿갓(1807~1863)도 적벽의 풍광에 빠져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다. 적벽을 비롯한 동북 일대를 마음의 고

방랑시인 김삿갓 말년 보낸 절경

향으로 상징했던 것 같다. 청정의 산세와 지순한 풍취에서 고향의 안락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지필묵을 꺼내 일필휘지로 시를 써내려가곤 했다. 아마도 그는 충효의 어떤 길도 갈 수 없었던 참회록을 자신만의 시로 형상화했을 것이다.

개방을 앞두고 방문했다는 송광사 광주포교당 김상사 도제 스님은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다. 날로 생경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적벽이 개방돼, 많은 이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

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다는 김홍주(45·광주 동림동) 씨는 "지난 여름 베트남 하롱베이를 다녀왔는데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광이 뛰어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서적벽은 주 3회 하루 두 차례(오전·오후) 개방되며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안전을 위해 동절기(12월~2월)는 개방하지 않고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천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셈처럼 솟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 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4. 10. 8. (수) 2시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①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② 한국 주택시장의 미래 분석과 전망
- ③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④ 토지 대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⑤ 3천~1억 소액투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천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협력기자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이사항 안 두 경 현우 하연은

5,000만원 경품 1,479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 행사기간내 자동차(3건이상 신청, 기존 유지 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경품 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제습기	9명
4등	쿠쿠압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8등	아차상	1200명

※ 경품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등까지는 참석본인에만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X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독교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 사거리